



즉시 배포용: 2019 년 3 월 1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산모 사망률 및 인종간 보건 격차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FORCE ON MATERNAL MORTALITY AND DISPARATE RACIAL
OUTCOMES)로부터 보고서 전달받아**

보고서의 제안은 산모 보건 향상, 인종 및 경제적 격차 해선, 산모 사망률 및 이병률 수치
감소가 목표

행정부 예산에서 800 만 달러를 투입하여 제안안 실행

제안안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개발되었고 실행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산모 사망률 및 인종간 보건 격차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force on Maternal Mortality and Disparate Racial Outcomes)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주지사의 여성 어젠다에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의 제안안은,
주지사가 작년 4 월 산모 사망률을 목표로 발표한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뉴욕의 산모 보건 향상, 인종 및 경제적 격차 해소, 산모
사망률 및 이병률 수치 감소에 대해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일원의
직접 참가는 산모 사망률 태스크포스의 제안안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주지사는
지속적으로 이 과정의 일부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의 목소리를 포함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여성은 출산 시, 그리고 그 전후에 높은
수준의 건강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산전 건강 관리 서비스 및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막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결과 및 제안 사항은 인종적 격차를 줄이고 산모 사망률과 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 8 년간 뉴욕주는 산모 사망률을 급격하게 줄였지만, 뉴욕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은 여전히 백인 여성에 비해 출산 시 사망할 가능성이 2~3 배 높습니다.
태스크포스는 6 개월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하고 다음 10 개의 제안사항을 내놓았습니다.

1. 주 전역에 법령으로 산모 사망률 검토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
설립

2. 병원의 암묵적인 인종적 편견에 대한 포괄적인 트레이닝과 교육 프로그램 고안 및 시행
3. 수준 개선을 위해 출산 전후 사망률 결과에 대한 포괄적 데이터 센터 설립
4. 조산사에 대한 공평한 보상 제공
5. 뉴욕주 지역사회 건강 노동자 서비스 확대 및 개선
6. 필요한 다양성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산사를 위한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장학금 프로그램 개설
7.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의대와 간호대에 능력 중심 커리큘럼 개설
8. 의료계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여성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교육 자금 면제 프로그램 개설
9. 산후 관리를 최적화 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의 전문가 워킹 그룹 소집
10. 보편적인 산전 및 산후 지속 관리 장려

보고서의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 년 뉴욕주는 분명한 인종적 격차를 보이며, 산모 사망률 수치 전국 30 위를 기록했습니다.
- 뉴욕주에서 보고된 사망 산모수는 2001-2003 년 100,000 명 출생 당 15.4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2016 년 100,000 명 출생 당 19.6 명이 되었습니다. 동기간 미국의 산모 사망률은 2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 2012-2014 년 뉴욕주의 임신 관련 사망의 66 퍼센트가 제왕절개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제왕절개는 다른 모든 외과 수술과 마찬가지로 합병증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 2012-2014 년 뉴욕주의 산모 사망을 검토한 결과, 임신 관련 사망을 초래한 상위 5 가지의 원인은 색전증(24 퍼센트), 출혈(16 퍼센트), 감염(16 퍼센트), 심장근육병증(12 퍼센트), 고혈압(7 퍼센트)이었습니다. 임신 관련 죽음의 65 퍼센트는 출산 전 일주일 안에 일어났습니다.
- 2012-2014 년 산모 사망률 검토 집단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상위 5 개 임신 관련 질병 발생 원인은 약물 남용(30 퍼센트), 교통사고(22 퍼센트), 자살(17 퍼센트), 살인(15 퍼센트), 암(14 퍼센트)이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산모 사망률과 인종간 보건 격차를 줄이려는 다각도 노력의 일환으로 산모 사망률과 인종간 보건 격차에 관한 태스크 포스(Taskforce on Maternal Mortality and Disparate Racial Outcomes)를 2018 년 4 월 설립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뉴욕주 여성 및 소녀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 겸 주지사 비서인 Melissa DeRosa, Kathy Hochul 부지사, 당시 뉴욕 공익법무관이자 현재 법무장관인 Letitia James 을 비롯해 뉴욕주 상원 및 하원 임명자, 산부인과 전문의, 조산사, 병원 대표자, 출산 경험자, 기타 관련자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공동의장은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DO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와 간호학 박사(DNP)이자 간호사 조산사(CNM), 인증 조산사(LM), 뉴욕주 인증 조산사 도우미 협회(New York Association of Licensed Midwives, NYSALM)의 Sascha James-Contarelli 회장, 미국 소아과 전문의 협회의 회원(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 FAAP)이자 뉴욕 주립 대학교(SUNY) 업스테이트의 전임 학장인 의학박사(MD) Danielle Laraque-Arena, 킹스 카운티에 위치한 뉴욕시 보건 병원(New York City Health and Hospitals)의 산부인과 과장이자 의학박사(MD) 겸 공공행정 석사(MPH)인 Wendy Wilcox 가 맡았습니다.

뉴욕주 산모 사망률 및 인종간 보건 격차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force on Maternal Mortality and Disparate Racial Outcomes)는 2018 년 6 월부터 12 월까지 회의를 3 차례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태스크포스는 뉴욕주의 산모 사망률과 비교한 미국의 산모 사망률 현황에 대해 주 및 전국의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자로부터 청취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출산 건강에 대한 인종적 영향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구성원들은 인종 보건 격차와 예방 가능한 산모 사망률 및 이병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지사에게 제안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태스크포스 회의의 제안 사항은 Zucker 커미셔너가 주재한 주 전역의 지역사회 청취 세션 및 기타 브레이크아웃 세션,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제안안이 있었지만, 태스크포스 구성원의 추천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뉴욕의 산모 사망률 및 이병률을 줄이고 인종 보건 격차를 감소하기 위한 10 가지 제안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Cuomo 주지사는 2019 년 주 시정연설에서 즉시 태스크포스의 상위 제안 사항을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모 모성애 검토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 설립, 병원에 암묵적 인종적 편견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설립, 지역사회 건강 노동자 프로그램에 투자, 출산 사망률 데이터 센터 건립 등이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이러한 중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2019-2020 년 행정부 예산에서 2 년에 걸쳐 800 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지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미국 산부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와 파트너십을 맺고, 출산 후 관리 전문가 집단을 소집하여 출산 직후의 중요한 시기를 대상으로 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태스크포스 구성원들은 남아있는 제안 사항의 장기 실행 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제안안은 지역사회 일원들이 조직하며, 보건부(DOH)는 산모 사망률 및 부정적 출산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포럼을 통해 파트너십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게다가 주지사는 보건부(DOH)에 산모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다년에 걸쳐 추가적인 개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출산 보육 가치 기반 지불 제도 도입,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보험 보상 제도 검토, 효과적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다양한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지원 등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한 세기동안 우리나라에 의학적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너무 많은 수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출산 과정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주 전역에서 부정을 바로잡고 어머니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산모 사망률 태스크포스(Maternal Mortality Task Force)와 함께, 우리는 모든 각도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대담한 제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 사항을 시행함으로써, 우리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구조적인 인종 격차를 해결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성 및 소녀 협의회(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의장 겸 주지사 비서인 Melissa DeRosa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건강은 여성의 평등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족, 커리어, 건강,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높은 수준의 건강 보험을 제공하고 뉴욕의 어머니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올해 여성 정의 어젠다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우리는 반드시 산모 사망률에서 인종 격차를 줄이고 모든 뉴욕의 어머니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출산 시 사망할 확률은 백인 여성보다 약 4 배 높다는 것은 슬픈 진실입니다. 산모 사망률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뉴욕주에 이렇게 큰 인종 보건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상황에 관계 없이, 모든 여성이 반드시 평등하게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담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Latoya Joyner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태스크포스 보고서의 공개는 다양한 인종의 여성,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건강 관리에서 발생하는 인종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인종 격차는 너무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의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제안안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 주 전역에 법령으로 산모 사망률 검토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의 설치를 지원한다는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인종의 뉴욕 여성이 수준 높은 관리를 받지

못하도록 악영향을 미치는 암묵적 인종 격차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서 정부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산은 가족에게 즐거운 시간이어야 하며, 공포와 암묵적 인종 격차에 더럽혀져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제안 사항은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모든 여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